창극 광한루연가, 춘향제 맞아 첫 선

내일 밤 무료 개막공연… 해학 · 풍자 선사

14일 창극 광한루연가Ⅳ '아매도 내 사랑아'가 춘향제를 맞아 첫 관객을 만난다.

창극 광한루연가Ⅳ '아매도 내 사랑아'가 춘향제를 맞아 올해 첫 관객을 만난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창극 광한루연가 시리즈의 올해 공연명을 '아매도 내 사랑아!'로 정하고 오는 5월 14일 첫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개막공연은 춘향제 일정에 따라 오후 9시 광한루원 완월정 무대로 시간과 장소를 옮겨 무료로 진행된다. 이후 5월 2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루원 수상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창극 광한루연가는 이전의 춘향전에서 다루지 않았던 싱그럽고 수줍은 열여섯 춘향과 몽룡의 첫 사랑을 그린다. 또한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며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다뤘다.

이전 시리즈에 비해 개성 있는 캐릭터도 강화되었다. 구성진 사투리와 입담으로 무장한 엿장수와 뻥튀기 장수, 취미는 관객 주리틀기 특기는 관직 팔기인 변사또가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해학과 풍자를 선사한다.

이 공연은 남원시립국악단의 이난초(월매 역), 고현미(월매 역), 조선하(춘향 역), 임현빈(몽룡 역) 등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출연해 판소리의 정석을 선보이며, 웅장한 국악관현악과 화려한 군무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춘향전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진 곳으로 알려진 광한루원에서 펼쳐져 실제 춘향과 몽룡이 살아 숨 쉬는 듯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며 관객의 몰입을 높인다.

이 공연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남원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남원시립국악단의 창극 광한루연가 시리즈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누적 관객 수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0여명 가운데 재관람 의향에 대한 긍정 응답이 96.4%,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94.4% 나타나 재미와 감동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 작품이다.

창극 광한루연가Ⅳ '아매도 내 사랑아'는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루원 수상무대에서 공연되며,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여름 성수기에는 목·금· 토 연속공연으로 펼쳐진다.

관람권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하거나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10,000원이다.

공연 당일 남원시내 숙박 영수증 또는 지역업체에서 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각각 10%를 할인하는 등 최대 50%까지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관람을 계획하였다면 할인정책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공연 관계자는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현판식

남원시 술미안길 14-19(노암동)에 자리 잡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5월 12일 개관 기념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총 90억원을 들여 좌도 농악의 보존과 공연, 자료수집 등을 위해 건립되었다. 남원은 읍면동마다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좌도 농악 고유의 부들상모 놀이를 보존, 구사해 오고 있는 좌도 농악의 명성지이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농악 이외 다양한 분야의 국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관과 전통구들 방식으로 50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숙박동, 관리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소리 명상길, 생명의 노래길, 솔바람길이 연결되어 있어 소리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휴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개관을 기념하여 전국 유명 농악단 초청 공연이 춘향제 기간 중 광한루원 정문 앞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5월 14일(토) 12:00시에는 무예적 몸짓이 농악에 유입되어 활발하고 씩씩한 것이 특징인 진주 삼천포 농악이 공연을 펼치고, 15일(일) 15:00시에는 광명시 소하동과 학온동 지역에서 45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광명 농악이, 16일(월) 17:00시에는 좌도 농악의 명성을 이어가며 유일하게 부들상모를 구현하는 남원 농악이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남원 농악의 보존·전승 기능과 함께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의 차원을 넘어서 감성 관광으로, 일상의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새로운 관광문화를 열게 될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결점에 사로잡혀 본질적인 나를 방치하고 있는가

'나를 마주하는 용기'는 자신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대신 내면의 풍성한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싫어한다. 결점으로 인해 상처받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이 모든 문제는 '본질적인 나'보다 이름·나이·경험·사회적 지위·보여지는 인격 등으로 이루어진 '가면을 쓴 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본질적인 나는 가면 안쪽에 있다. 본질적인 나는 많은 것들로 이뤄져 있고, 신비롭고 끊임없이 변하고 굉장히 풍성하다. 가면 안쪽의 본질적인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이 책을 쓴 에밀리-앤 리걸과 진 디머스는 자신의 결점에 사로잡혀 본질적인 나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때라고 말한다.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세대를 막론하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특히 우리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은 자살·폭력·집단 따돌림·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자들은 내적 성장을 간과하고 외모·성적·대학 등 가시적인 조건으로 존재감을 인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적 조건에 따라 결점을 가름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도 일조한다.

저자들은 지금 청소년에게 시급한 것은 '본질적인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나는 누구인가?' 아주 간단하고 짧은 질문이지만 한입 크기로 쪼개서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선명해진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난 누구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난 누구지?' 나는 '누구와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나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들 자체가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유영훈 옮김, 216쪽, 1만 2800원, 나무생각.

/이성주 기자

전주국제사진제 내일 개막

9회 전주국제사진제가 14일 오후 3시 전북예술회관에서 개막한다.

사진전은 뉴욕컨템퍼러리사진전, 전주로컬문화사진전, 별빛 스크리닝 여행으로 기획 전북예술회관과 전주신중앙시장 등 한옥마을 일대에서 22일까지 열린다.

▲뉴욕컨템퍼러리사진전

사진전은 'Fact-Fiction, 진실과 허구' 주제로 열리며 사진술에 천착한다.

전시작가들은 사진은 얼핏 보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듯 보이지만 실은 사진작가가 의도한 고도의 연출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사진작가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이미 머릿속에 계산된 구성으로 촬영을 시도하기 때문에 팩트가 픽션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사진은 작가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주관적 기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작품을 감상하라고 주문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루카스 포글리아(미국), 빅토리아 헤리-허친슨(영국), 네이트 라슨과 마니 신델맨(미국), 마로시카 라빈야(벨기에), 스테이시 르네 모리슨(미국), 오릿 라프(이스라엘), 아르네 스베슨(미국), 매트 윌슨(영국) 등 8인으로 이들 작품은 전북예술회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주로컬문화사진전(전주한식문화미디어 사진전)

전주가 거주지인 사진작가 6인은 무심코 스쳐 지나는 평범한 우리네 일상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사진에 담는다.

신서연 작가는 전주 콩나물 국밥의 음식문화를, 오준규 작가는 음식을 나누고 소통했던 공간을, 몽골 출신 유니 작가는 전주의 풍경을 이국적으로 담아낸다. 또한 황태문 작가는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문화 사진을, 황선희 작가는 전주중앙시장의 인물을, 곽풍영 작가는 조선시대 후기 한식 기록을 고증해 사진으로 남겼다.

이들 작품은 전라북도예술회관 2층 전주신중앙시장에 전시된다.

▲별빛 스크리닝 여행

이 행사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전시와 전주의 문화를 즐기는 행사로 신중앙시장 센트럴광장과 청년몰 일대에서 진행된다. 리셉션은 14일 오후 7시.

/정해은 기자

정조의 서화 취미는?

'정조 창경궁에 산다-서화취미'가 창경궁 영춘헌과 집복헌에서 10월까지 열린다.

궁궐의 전각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 영춘헌·집복헌 전각 안에 가상의 궁중생활문화 관련물을 재구성해 선보이는 궁중생활문화 프로그램이다.

집복헌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순조가 탄생한 곳이다. 정조는 순조를 낳은 수빈 박씨를 총애해 집복헌을 자주 드나들면서 가까운 영춘헌을 독서실 겸 집무실로 쓰기도 했다.

소박하고 검소하며 문예를 즐긴 정조가 거처한 영춘헌과 집복헌에서 펼쳐졌을 궁중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구성했다. 정조의 서화취미를 중심으로 '감성을 그리다'(서화), '배움을 즐기다'(학문), '책을 가까이 하다'(독서), '마음을 전하다'(편지), '자연과 호흡하다'(명상) 등 5개 소주제 공간을 꾸몄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서 지은 '영춘헌 축수시', '정조 묵매도' 등 전시품을 통해 정조의 성장 과정, 효심, 학문적 열정 등을 보고 느끼며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성주 기자

주말 상설 '아나옜다, 배갈라라!' 평일 상설 '유유자적' 볼거리 풍성

전주문화재단의 '한옥마을 평일·주말 상설공연'이 열릴 한옥마을은 한동안 밤이 낮보다 아름다울 전망이다.

주말상설공연 '아나옜다, 배갈라라!'와 평일상설공연 '유유자적'이 한옥을 배경으로 야외무대에서 펼쳐져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판소리〈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전주마당창극 '아나옜다, 배갈라라!'는 오는 21일~10월 15일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주전통문화관 혼례마당에서 열린다.

여름방학, 추석, 연휴기간인 8월~10월에는 평일과 일요일 특별 추가 공연을 진행한다.

입장료는 전석 3만원이며 티켓 1장으로 공연관람, 전통문화체험, 잔치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 한정식 전문점 한벽루의 전주비빔밥 시식권이 포함된 스페셜 패키지 티켓은 4만원.

이 공연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예매 및 공연 문의는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283-0223으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악, 뮤지컬, 비보이 등 지역예술단체의 7개 공연 프로그램인 유유자적은 26일~10월 7일 매주 목·금요일 저녁 8시 전주소리문화관 야외마당에서 공연된다.

26일~6월 10일 전통 사물놀이패 〈동남풍이 온다. 라스트 포원과 디제잉 콜라보〉, 6월 16일~7월 1일〈부채, 춤바람을 일으키다〉, 7월 7일~29〈한옥마을 잔치마당극 전주 사는 맹진사〉, 8월 4일~19일〈왕기석 명창의 판소리 다섯 바탕 오마주〉, 8월 25일~9월 2일〈퓨전전통해학극 미스터춘충〉, 9월 8일~23일〈이창선 대금스타일과 함께 하는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 9월 29일~10월 7일〈뮤지컬 전주연가〉가 잇따라 펼쳐진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 대행 임환)은 "전주문화공연을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더 나아가 전주예술발전을 위해서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5월 13일〉

▷쥐띠
48년생: 내실을 다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60년생: 욕심을 부리면 실패가 따른다.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84년생: 동기간과 시비수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라.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운이다.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

▷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될 수 있으니 추진하라.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하라.

▷용띠
52년생: 큰 그림을 그려 앞을 내다봐야 할 때.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미리 대비하라.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라.

▷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자숙하며 때를 기다려야.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한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띠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이니 독단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진행하면 길하다.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여.

▷원숭이띠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68년생: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난관이 발생한다.

▷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은 금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히게 한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게 될 것이다.

▷개띠
46년생: 변동수를 갖는 것은 흉하니 때를 기다려라.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82년생: 몸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8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